

Empowered as New Generation Leader

새로운 세대의 리더로써 능력을 덧입기

John 12:24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내가 너희에게

Thank and praise God for the work of world mission that has gone on for the last 50 years in UBF.

지난 50 년간 UBF 를 통해서 세계선교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Thank you Lord for the servants who have gone on before and worked hard to prepare a foundation for ministry to flourish.

역사가 번영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종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that by your grace I could contribute some tiny bit to your glorious work on earth.

이 땅에 이루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My name is Jeremy Hajek I am from Lombard Illinois and belong to the Dupage UBF – which is 30 miles (15 km) outside of Chicago.

제 이름은 제레미 하이젝입니다. 저는 일리노이주 램바드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15km 떨어진 듀페지 UBF 에 속해 있습니다.

I have lived in Dupage County all my life.

저는 듀페지 지역에서 자라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Our ministry's main university is college of DuPage. This is one of the largest among 2 years college in the US. Most students complete their time and transfer out to another 4 years university.

저희 센터가 섬기는 대학은 듀페지 대학입니다. 이 곳은 미국 2 년제 대학 가운데 큰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른 4 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학점을 이수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But by God's grace and a unique series of events I was able to stay in Dupage County and get a job right next to the campus and Bible Center. I believe God was preparing me to participate in his campus mission work going on at College of Dupage and IIT.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몇가지 특이한 사건들로 인해서 저는 듀페이지 지역에 남아 대학과 센터에 가까운 곳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듀페이지 대학과 일리노이 공대에 일어나는 캠퍼스 미션에 제가 참여하도록 준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As for why I am a candidate to be an empowered next generation leader, it is clear.

왜 제가 다음 세대의 영적리더로서 능력을 덧입는 후보자가 되었을까요?

It is by the grace and mercy of Jesus Christ alone.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I was a useless sinner doomed to live in my sins and the Lord of Glory saw fit to call me to repentance and save me from my sins.

저는 회개와 구원으로 저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가운데 죽을 쓸모없는 죄인이었습니다.

He is the one that made me a useful and productive servant of God and called me to his campus mission ministry.

저를 캠퍼스 선교에 부르시고, 열매맺는 하나님의 종으로 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It is by grace alone that I stand. Though I have many short comings He is transforming my life step by step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저는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비록 많은 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제 인생을 예수님의 형상 가운데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As a young man I lived a life of selfish indulgence not caring about others but using them for my own enjoyment.

젊은 청년의 때에 저는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남을 섬기기는 커녕, 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I gave bad influence to others and hurt others not thinking about my actions in life.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생각이 없는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This led my life to lack purpose and direction, even I wasted many talents and abilities.

이것은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재능과 능력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While I was enrolled at the College of Dupage and walking around the campus one day, one missionary family invited me to Bible Study.

제가 듀페이지 대학에 등록하고자 어느 날 캠퍼스를 걷고 있을 때, 한 선교사 가족이 저를 성경공부에 초청하였습니다.

I cannot remember why but I agreed and accepted their invitation in October of 2001.

2001 년 10 월 저는 제가 왜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Now I look back and see that it was the Holy Spirit preparing my life to be used for greater things than my own enjoyment and selfish pleasure.

지금 제가 그 때를 되돌아 보니, 성령께서 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보다 더 큰 일에 쓰이기 위해서 제 인생을 준비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rough deep Bible study of Luke's gospel and Genesis I was able to meet the living God and see the life changing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누가 복음과 창세기의 깊이있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My life was changed.

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My key verse became John 12:24,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제 인생요절은 요한복음 12 장 24 절이 되었습니다. “ “

Through seeing the grace of Jesus Christ poured out on my life and through the sacrificial work of missionaries in the field I felt the grace of God touch my heart.

제 인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No longer did I want to hang out and go dancing.

저는 더이상 춤추러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No more did I want to listen to heavy metal rock records.

저는 더이상 헤비메탈 음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No more did I want to watch ungodly media.

경건하지 못한 영화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니다.

I threw away all my tapes and CD's and movies and my life was changed.

저는 제 모든 음악과 영화 테이프와 CD 를 버렸습니다. 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Through Jesus revealed in my changed life my sister was also able to begin Bible study with my wife and participate in our ministry.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인생으로 인해서, 제 여동생이 성경공부를 제 아내와 시작하였고, 역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I realized that the Lord prepared me for work in Dupage County and for this nation and for the world.

저는 주님께서 듀페이지 지역과 이 나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As I was raised in Dupage County, the Lord saved me and prepared me I believe to go back to the lost students and give back to the community I took so much from.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가 듀페이지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In order to be a shepherd the Lord has been training me through weekly Bible Study for the last 10 years under the auspice of Msn David Kim.

지난 10 년동안 데이비드 김 선교사와의 매주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목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Going through the word of God deeply and writing testimonies has helped me to be able to pick the word of God and the message of God out of the text and not my own ideas.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소감을 쓰는 일은 제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메세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었습니다.

It has also taught me to humbly listen to the word of God.

또한 그것은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In cooperation with Msn David Kim I have been able to post Bible Study questions and answers to our ministry website in order to be able to help the body of Christ.

데이비드 김 선교사님과의 동역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성경공부 문제와 답을 저희 센터 웹 사이트에 올려왔습니다.

By God's grace I have been involved in the planning of the Young Disciple Conference (YDC) and disciple workshops.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영디사이플 수양회나 워크샵을 준비하는 데에 참여해왔습니다.

Through message preparation training from numerous Easter and Fall bible Academies I could struggle to learn the heart of Jesus by pouring out my soul to understand the word of God.

수많은 부활절과 가을 성경학교에서 메세지를 준비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영혼을 쏟아부음으로써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The Lord trained me through his servants to understand not just how to speak the word of God, but how to understand the text and share my own testimony based on the passage.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법이 아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나누는 법을 훈련시키셨습니다.

Message training helps my mind focus on the word of God and what the word says not what I think it says.

메세지 훈련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보다 제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As a young man in Christ I made a lot of mistakes in interacting and treating fellows Christians.

그리스도 안의 젊은 청년으로써 저는 동역자들을 대하고 사귀는 데에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I learned from presiding at the Sunday service that the alter of the Lord is holy and the words spoken there should be clear.

저는 주일예배 사회자로서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다는 것과 그곳에서 전해진 말씀은 깨끗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Through many challenges I have learned to curb my pride and serve others out of love and grace.

많은 도전을 통해서, 저는 제 자존심을 접고,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Through setting up chairs and hymn books I learned that the holiness and importance of service to the Lord, seen or unseen, is important to have a proper place of worship.

의자와 찬송가책을 세팅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거룩함과 주님께 대한 봉사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After living in the bible house for 5 years and taking care of the house and cutting the grass and maintaining the building I learned the importance of sharing and giving of oneself to the ministry.

5년 동안 바이블 하우스에 살면서, 센터를 관리하며 잔디를 깎았고, 저는 역사에 제 자신을 드리고 나누는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Just as Christ lived an open life amongst the disciples, living in the Bible house was a great learning experience to share the house/center and serve others there.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하신 것처럼, 바이블하우스에 사는 것은 센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lso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to see the work of God going on in many other countries.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여행하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I have been to Korea, Mexico, Germany, Canada, Australia, and Africa (Kenya).

저는 한국, 멕시코,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방문하였습니다.

Here I could meet and learn the heart of Jesus to sacrifice their lives from many front line missionaries and have in common the grace of Jesus Christ with them--though our cultures were far different.

여기서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고, 비록 문화는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Also I have received message preparation training by helping proof read Msn David Kim's Sunday message for the last 6 years.

또한 저는 지난 6년간 데이비드 김 선교사님의 주일예배 메시지를 읽고 교정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By God's grace I was a life testimony speaker at the World mission report in Seoul in 2006 and received message training from Pastor Ron Ward, Pastor Teddy Hembikedes, Msn Mark Yoon, and Dr. John Jun for the 2010 Midwest regional summer conference.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06년 서울 세계선교보고대회에서 소감강사가 되었고, 2010년 미국 중서부 지역 여름 수양회에서 말씀강사로써, Pastor Ron Ward, Pastor Teddy Hembikedes, Msn Mark Yoon, 그리고 Dr. John Jun 으로부터 메시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This messenger training taught me that the secret to sharing a conference message is deep meditation on the word of God.

이 메시지 훈련은 힘있는 수양회 메시지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I learned from these great servants their heart for Jesus but also their joy in Jesus and repented of my tiny faith and confidence in my own abilities.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마음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배웠고, 저의 작은 믿음과 제 능력에 대한 과신을 회개하였습니다.

I learned to rely on Jesus all the more through message training and to give my pride up because I have nothing to stand on before Jesus.

저는 메시지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No leader of God's people, from Moses, to Saul, to Peter, to even Jeremiah actively campaigned for their jobs.

모세에서부터, 사울, 베드로, 예레미야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정치적 선택을 받은 리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Sometimes I wish that God's servants could lead forever and I could just enjoy their work.

때때로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고, 저는 제 일을 단지 즐겼으면 하고 바랍니다.

But the point of this conference is looking to the next 50 years.

그러나 이 수양회의 요점은 다음 50 년대를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My life, the events that have happened are not a coincidence.

제 인생과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God is preparing me to answer the call.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답할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My key verse is John 12:24 because my life I believe was meant to be given as a sacrifice to raise many disciples of Jesus.

제 인생요절은 요한복음 12 장 24 절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의미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데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데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Like my namesake Jeremiah, I cannot claim I am too young or slow of speech.

제 이름 예레미야처럼, 저는 잘 말할 줄을 모르고, 아직 어렵니다.

The Lord has provided all the tools to reach out and help participate in his ministry in the next 50 years and until Kingdom Come.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다음 50 년동안 당신의 역사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